

가전업계,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확대… “단가보다 환경 우선”

삼성전자 2030년까지 25만톤 사용
LG전자 LCD TV 등 사용범위 확대
위니아딤채 제품 내장재 일부 활용

국내 가전업계가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을 확대하고 있다. 재활용 플라스틱은 일반 플라스틱보다 단가가 높음에도 기업들이 원가 부담을 감수한 친환경 경영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특히 최근 ESG(환경·사회적가치·지배구조) 경영이 산업 전반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실생활과 밀접한 가전업계가 친환경 측면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LG전자·위니아딤채 등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

6월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소비자 가전 부문에서 재활용 플라스틱 2만5000톤을 사용했다. 모바일·반도체 부문까지 포함할 경우 2009년부터 총 27만6000톤의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총 25만톤의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할 계획이라는 목표도 제시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40g짜리 TV리모컨 중 28%를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삼성



삼성전자는 TV리모컨에 재활용 플라스틱을 일부 사용해 만들었다. /삼성전자

전자는 일부 모니터, 사이니지 스탠드, 뒷면 커버 등에도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했다. 이렇게 사용한 재활용 플라스틱은 삼성전자 자사 폐전자제품을 수거해 추출하거나 재활용 플라스틱 업체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폐전자제품에서 추출한 3366톤의 재활용 플라스틱을 제품 제조에 다시 사용했다고 밝혔다.

LG전자는 지난달 1일 환경부·자원순환사회연대와 탈플라스틱 협약식을 열고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확대를 공식화했다.

LG전자는 현재 LG QNED MiniLED와 일반 LCD TV 일부 모델에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한다. LG전자 관계자는 “모델마다 재활용 플라스틱이 사용

되는 부분이 다르지만 내부 부품, 다리 등에 사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LCD TV에서도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을 점진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위니아딤채는 제품 내장재에 한해 재활용 플라스틱을 일부 사용하지만 앞선 두 기업에 비하면 적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다만 회사 관계자는 “앞으로 회사 차원에서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을 늘려야 한다는 인식은 있다”고 언급했다.

◆**재활용 플라스틱…온실가스 저감·플라스틱 절감 효과**

삼성전자는 영상디스플레이 제품에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함으로써 500톤 이상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환경성 정량평가법인 전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제조된 LG전자 QNED MiniLED. /LG전자

과정 평가(LCA)에 따르면 재활용 플라스틱 28%를 사용한 제품은 일반 플라스틱 제품보다 31% 가량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올해 재활용 플라스틱과 함께 친환경 아이템이 적용된 제품을 통해 약 2만5000톤의 온실 가스 감축을 예상하고 있다.

LG전자는 올해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연 1050톤 가량의 폐플라스틱 재생 효과를 기대했다. 더불어 LG전자는 차세대 OLED TV 경우 플라스틱 부품수가 적고 뒷면 커버가 메탈이라 같은 크기 LCD TV에 비해 플라스틱 사용량이 30%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올해에만 1만톤 이상의 플라스틱 절감 효과를 예상했다.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에 따른 제품 가**

격 인상 가능성…“영향 크지 않을 것”

재활용 플라스틱은 제조 공정에서 단가가 높아진다. 여기에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6월 재활용가능자원 가격조사 결과에 따르면 모든 폐플라스틱 가격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한 제품의 가격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대표는 “재활용 플라스틱이 플라스틱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 비싸서 제품 가격이 인상될 수도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무분별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이 먼저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제품 가격이 인상되더라도 환경세 차원에서 소비자가 감당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재활용 플라스틱이 일반 플라스틱보다 비싼 게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비용까지 감안해서 우선순위는 차원으로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가전 업계 관계자는 “재활용 플라스틱이 일반 플라스틱보다 비싸지만 제품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마케팅 비용 등 제품 가격에 미치는 요인이 다양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한창대 수습기자 ccl1@metroseoul.co.kr

현대로템, 3354억 규모 탄자니아 철도사업 수주

전동차 80량·전기기관차 17량 납품
표준궤 철도사업 1,2단계 구간 운행

현대로템이 탄자니아에서 3354억원 규모의 전동차·전기기관차를 수주하며 기분좋은 시작을 알렸다. 현대로템의 탄자니아 시장 진출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로템은 탄자니아 철도공사가 발주한 전동차 80량·전기기관차 17량 사업을 낙찰받았다고 6일 밝혔다. 전동차는 2157억원, 전기기관차는 1197억원 규모로 2024년까지 납품될 예정이다.

이들 열차는 탄자니아에서 추진 중인 표준궤 철도사업 1, 2단계 구간인 다르에스살람과 마쿠포라를 연결하는 546km 노선에 우선 투입된다. 탄자니아 표준궤 철도사업은 탄자니아 정부가 약

70억 달러를 투자하는 철도 인프라 프로젝트로 1219km의 5단계 구간에 걸쳐 선로 폭이 1435mm인 국제 표준 규격의 선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탄자니아는 표준궤보다 좁은 선로가 많아 열차 운행속도가 시속 30~40km로 느렸지만 표준궤 노선 건설로 시속 160km까지 열차 운행이 가능해 승객과 화물 운송을 대폭 증가시킬 수 있게 됐다.

열차는 모두 최고 시속 160km로 운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전동차는 8량 1편성으로 구성돼 약 590여명의 승객이 탑승할 수 있다. 현대로템은 차량의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해 고속 운행시에도 승객들이 안정된 승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며 휠체어석과 수유실 등의 시설도 설치했다.

이번에 현대로템이 수주한 전동차와

전기기관차는 그동안 디젤 전동차를 운용해온 탄자니아에서 운행되는 첫 번째 친환경 전기 열차다.

현대로템은 “이집트, 튀니지,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시장에서 보인 최적화된 제품의 성능과 안정적인 납품실적, 그리고 뛰어난 사업관리 역량이 이번 수주의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현대로템은 이번 수주 실적을 바탕으로 탄자니아 철도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방침이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탄자니아에 운행되는 최초의 전동차인 만큼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고품질 차량 납품으로 향후 기대되는 추가 사업도 수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삼성전자, ‘비스포크 아뜰리에’ 공개

182점 아트 콘텐츠 제공

삼성전자가 6일 비스포크 아뜰리에를 공개했다. 비스포크 아뜰리에에 패밀리허브 냉장고 전용 애플리케이션으로 고전 명화부터 국내외 신진 작가 작품 등 182점의 아트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삼성전자는 비스포크 아뜰리에가 미술 작품을 연도·주제·사조 등 여러 가지 기준으로 구분한 아트 테마 콘텐츠를 제공해 사용자들이 더 편리하게 작품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상 모드로 작품을 재생하면 전시 작품에 대한 설명이 자동으로 자막과 음성으로 재생돼 비대면 도슨트 투어를 즐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비스포크 아뜰리에에는 고흐의 꽃 피는 아몬드 나무, 베르메르의 진주 귀고리를 한 소녀 등이 상시 제공된다. 이와 함



삼성전자가 6일 공개한 비스포크 아뜰리에. /삼성전자

께 ▲베리트 모겐센 로페즈, 얀 스카셀리크 등 5명의 북유럽 아티스트와 협업한 작품으로 구성된 북유럽 현대 미술 ▲서울에서 활동하는 현대 미술 작가 장희진, 정진경, 김선우, 이정은 등 4명의 작품을 소개하는 서울의 취향 ▲가나아트와 협업해 국내외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색채의 대화 등 특별 기획 전도 선보인다. /한창대 수습기자

삼성-LG-위니아딤채 재난지역 가전제품 무상수리팀 운영

3사·행안부, 무상수리 활성화 MOU

LG전자와 삼성전자·위니아딤채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와 자연재난 피해지역 가전제품 무상수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희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전명우 LG전자 홍보·대외협력 센터 부사장, 나기홍 삼성전자 사회공헌단 부사장, 박종문 위

니아전자 품질경영실 전무 등이 참석했다.

이번 MOU는 태풍·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더 많은 피해민이 무상수리 혜택을 받도록 협력한다는 취지에서 체결됐다.

이에 가전 3사는 재난지역 인근에 합동무상수리팀을 운영한다. 재난 피해민이 가전제품을 수리할 서비스센터를 알아보고 찾아가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행안부는 피해상황을 파

악해 가전 3사에게 공유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무상수리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시설·물품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합동무상수리팀의 운영 기간, 장소 등은 지자체와 가전 3사 서비스센터에서 안내한다.

MOU를 통해 재난지역에서 가전제품이 침수되거나 파손되는 등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점검과 수리는 무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창대 수습기자

LG이노텍 GM ‘품질우수상’ 4년연속 수상

전장부품 글로벌 경쟁력 입증

LG이노텍은 6일 미국 제너럴 모터스(GM)가 선정한 2020 품질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수상이다.

전장부품사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는 LG이노텍은 이번 수상을 전장부품의 글로벌 품질 경쟁력 입증 계기로 인식했다.

LG이노텍은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

중심으로 변화하는 차세대 전장부품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GM이 선정하는 품질우수상은 매년 품질 결함 제로 수준의 엄격한 기준을 만족시킨 협력사에 수여하는 상이다. LG이노텍은 2010년부터 GM에 직류·직류(DC-DC)컨버터·전기차 충전용 통신 컨트롤러(EVCC) 등 전기차용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한창대 수습기자